

기독교 상담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독교 상담 사역과 윤리-

◎ 안석 (서울기독대 교수)



“크리스천 상담자가 자신의 일을 소명이자 사명으로 생각한다면, 전문적인 상담 사역을 위해 어떠한 형식을 갖춰야 할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_ Ray S. Anderson

국내에 기독교 상담학이 소개된 지 수십 년이 지났다. 기독교 세계관과 사명감, 그리고 풍부한 경험으로 무장된 나무랄 데 없는 전문 상담 사역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 모두는 탁월성을 유지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기독교 상담의 탁월성을 알고, 내담자의 성숙을 위해 이론과 실제의 연구에서 탁월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 상담 윤리에서 그 탁월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초창기에 성직자에게만 제한되었던 기독교 상담 사역은 오늘날 일반 평신도에 의해서도 많이 수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비해 사회가 훨씬 복잡하고 다원화, 전문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상담 사역 분야는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다양한 윤리적 질문을 야기하지만 일일이 답하기란 지면 관계상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보다 성숙한 기독교 상담 사역을 위한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기독교 상담 사역자로서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 테스트용 체크 리스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성경적 근거에 의한 기독교 상담 사역

기독교 상담 사역에서 성경적 근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성경적 근거는 형식이나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가 완전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상담 사역자들은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고 매일매일 각자의 삶을 위한 개인적 지침들을 발견해 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기독교 상담 사역자는 인간관계의 갈등, 어려움, 시련, 고난 등이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생의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요 16:33; 시 37:7; 롬 2:9). 또한 이러한 문제들, 시련과 고난, 그리고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약 1:2-4; 살전 5:18). 그래서 기독교 상담 사역자는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야 한다(요 15:17; 엡 4:32; 요 13:35). 서로를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성숙을 위해 훈련도 시켜야 할 것이다. 지도자로서 신뢰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훈련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은 비판적이어서는 안 되며 건설적이어야 한다. 또한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마 18:15-17; 고전 5:11-13; 갈 6:1).

기독교 상담 사역자들은 종의 자세로 섬기는 지도력, 공동체 의식,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삶의 방식 등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야 한다(마 20:25-28; 요 12:26; 벧전 4:8-11; 골 3:12-17). 또한 매사에 최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마 25:31-40; 히 13:16; 고후 1:3-7).

2. 신앙에 근거한 기독교 상담 사역

기독교 상담 사역자는 창조주이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원자이자 통치자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오류 없이 우리를 인도하는 성경 말씀과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개인적, 직업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상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 사역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인간은 영·혼·육으로 구성된 존재이다. 마음, 육체, 영혼, 정신, 인격, 그 외에 인간과 관련된 대부분의 용어들은 인간의 본성을 토론하고 평가하기 쉽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기독교 상담 사역자에게 신비 그 자체이다.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근본적인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근본적인 권리와 필수적 책임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 전문적인 기술로서의 기독교 상담 사역

전문적인 기술은 기독교 상담 사역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전문적 기술이 없는 사랑은 단순히 감상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반면 사랑과 신적인 윤리가 없는 과학적 관찰과 전문적 기술은 단순한 치료적 행위에 그치기 쉽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 사역에는 기도를 포함한 다양한 기독교적 헌신을 통합하고, 전문적 교육과 훈련은 물론 상담사역에 요구되는 모든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내담자를 돕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자신의 능력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가장하며 자신에게 허락된 고유 영역을 넘어 활동하는 것은 비윤리적 상담 행위이다. 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없다.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 모두 유한하며 본질적으로 결점을 가진 존재들이며, 동시에 각각 내부적으로 장엄하고 숭고한 가치를 가진 존재들이다. 돕는 직업은 기술이면서 과학으로서 배워야 할 것이 많다. 또한 섬기는 기독교 상담 사역자는 자신이 행하는 일에 유능하며 충분한 인격적 소양과 통합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독교 상담 사역자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해로움 속에서 치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기독교 상담 사역자들이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며 헌신하고 있다. 감사한 일이다. 역동적이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특수성 때문에 상담 사역은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로부터 자유롭고 더욱 성숙하게 사역하기 위해 다음 자가 체크 리스트를 중심으로 스스로 살피는 기독교 상담 사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기독교 상담 사역자의 자가 체크 리스트

- 1. 나는 전문인으로서 기독교 상담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소명으로 생각하는가?
- 2. 나는 기독교 상담 사역을 함에 있어 매사에 기독교적 가치, 원리, 기준에 따르려고 노력하는가?
- 3. 나는 기독교 상담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가?
- 4. 나는 기독교 상담 사역자로서 종족, 성, 종교, 교육 여부 등과 무관하게 내담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 존중하는가?
- 5. 나는 기독교 상담 사역자로서 생존과 행복에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의존적인 사람들을 돕고 나아가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 6. 나는 기독교 상담 사역자로서 내담자의 신원과 그의 문제를 주의 깊게 보호하고 있는가?
- 7. 나는 기독교 상담 사역자로서 잘 훈련되고 유능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8. 나는 기독교 상담 사역자로 약한 사람을 섬김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교육과 경험, 토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가?
- 9. 나는 기독교 상담 사역자로서 나의 인간적 제한성과 편견을 인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 10. 나는 기독교 상담 사역자로서 신앙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섬기며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가?
- 11. 나는 기독교 상담 사역자로서 내담자와 성적으로 친밀한 행동은 신중하게 피하고 있는가?
- 12. 나는 기독교 상담 사역자로서 상업적인 기준보다는 기독교적이며, 전문적인 기준에 의해 섬기는 일을 홍보하고 촉진하고 있는가?



안석 서울기독교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상담학 교수, 치유상담대학원 주임교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 국립대학교 Ph.D,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상담심리치료 수퍼바이저, 놀이·아동상담 수련 수퍼바이저 및 상임위원, 한국목회상담협회 상담수퍼바이저 및 운영위원, (사)한국군상담학회 군상담수퍼바이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정신분석과 기독교 상담』 외 다수의 저·역서가 있다.